

SERI 경제 포커스

2008. 12. 09. (222)

오바마 취임 이후 美 의료시스템 개혁과 시사점

목차

FOCUS	1
1. 변혁이 예고되는 美 의료시스템	
2. 분야별 의료시스템 개혁 방향	
3. 예상 문제점	
4. 시사점	
주간 금융지표	13
주간 경제일지	14
경제통계	17

작 성: 고유상 수석연구원
(ys.koh@samsung.com)
02-3780-8173
책임편집: 복득규 수석연구원
(seribok@seri.org)
02-3780-8168

1. 변혁이 예고되는 美 의료시스템

□ 오바마는 고비용 구조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을 천명

- "백악관에서 하는 나의 첫 번째 법안 서명은 전 국민 의료보장에 관한 것일 것이다."((2007. 5. 29.). 아이오와 시 연설.)

- 오바마의 어머니가 53세에 난소암으로 사망한 사실도 정책에 큰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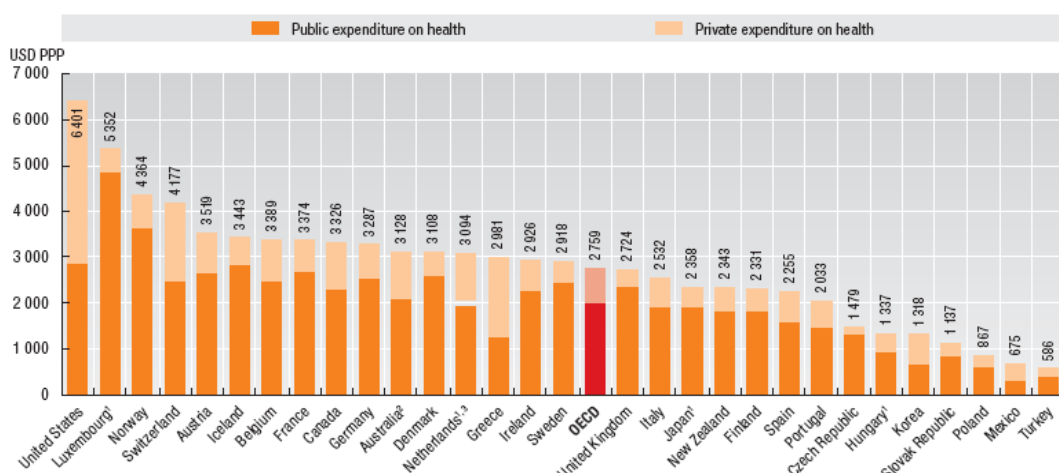
• "나의 어머니는 생애 마지막 한 달 동안, 회복보다는 의료보험이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해 더 걱정하면서 지냈다. ……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된다."(대선유세 연설에서)

□ 미국은 총 의료비 지출이 GDP의 15.3%로(2005년) 세계 최고 수준

- 2008년 직장보험 가입자는 연평균 4,704달러(독신) 및 12,680달러(가족)의 의료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¹⁾

• 1999년 평균 연간 보험료는 2,196달러(독신) 및 5,791달러(가족)로 각각 연평균 8.8% 및 9.1% 증가

OECD 가 1 (2005)



자료: OECD (2007). *Health at a Glance 2007: OECD Indicator*. p. 87.

¹⁾ The Kaiser Family Foundation and HRET (2008). *Employer Health Benefits 2008 Annual Survey*. p. 20, p. 25, p. 74. 2008년 근로자 개인 부담률은 16%(독신) 및 17%(가족) 수준

□ 막대한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지표는 상당히 낮은 수준

- 평균수명은 OECD 국가 중 24위, 1천 명당 영아사망률은 6.8명으로 27위²⁾
- 전 국민의 15.3%(4,570만 명)가 보험 未가입 상태

가

	민간보험 가입			공공보험 가입				무보험
	소계	고용주	개인	소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군인	
2007	67.5	59.3	8.9	27.8	13.8	13.2	3.7	15.3
2006	67.9	59.7	9.1	27.0	13.6	12.9	3.6	15.8

주: 통계수집 오차로 합계가 100%가 아님, '고용주'에는 공무원 의료보험 포함

자료: US Census Bureau (2008). *Income, Poverty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the United States: 2007*. p. 21.

- 보험 미가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자유경쟁시장 원칙에 따라 민간보험이 중심이 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적부조가 보완하는 미국식 시스템에서 기인
- 미국 이외의 모든 OECD 국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시행³⁾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개인 및 기업의 파산 등 사회문제가 야기

- 의료비 부담으로 매년 2백만 명이 파산하며, 이는 미국 전체 개인파산의 50%에 해당⁴⁾
- 직원 수가 수십 명 미만인 영세사업장은 의료보험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거나, 의료비에 따른 파산 위험에 상시 노출
- 대기업(2백명 이상)은 99%가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반면, 소기업은 62%, 10인 이하 사업장은 49%만이 의료보험을 제공⁵⁾

²⁾ OECD (2007). *Health at a Glance 2007: OECD Indicator*. p. 21, p. 35.

³⁾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단일지불인제(Single Payer System)를 통해 국가 또는 공공 보험자가 의료보험을 통제,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의료보험 가입률이 100%

⁴⁾ Himmelstein, David U. et al. (2005. 2. 2.). *Illness and Injury as Contributors to Bankruptcy*. *Health Affairs Web Exclusive*, p. 6.

⁵⁾ The Kaiser Family Foundation and HRET (2008). *Employer Health Benefits 2008 Annual Survey*. p. 30.

- 최근 파산위기에 몰린 **GM**도 의료보험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
 - 2008년 기준 대기업의 31%가 퇴직자에게 의료보험을 지속 제공⁶⁾
- 오바마 정부의 의료시스템 개혁 방향은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 및 예방의학·IT 도입 등을 통한 비용효율성 제고에 초점
- 보험료를 낮추고, 빈곤층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는 방향
 -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에 대한 의료 보장은 강제화할 계획
- 구체적으로 가구당 연간 보험료 2,500달러 절감, 예방 및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확대 제공, 취약계층 및 소기업 등에 보조금 지원

- 사적보험(Health Plan) : 고용주(기업, 주·연방 정부) 또는 비고용 개인이 가입하며, 보험 종류 및 가입 옵션에 따라 고용주와 고용인이 비용 부담
 - ▶ 보험자가 대규모 가입자 기반(구매력)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및 가격을 관리하는 시스템('Managed Care' System)
 - ▶ Plan에 따라 의료보장 범위, 선택 가능한 병원의 종류·수·지역 등이 정해짐
 - ▶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POS(Point-of-Service Plan),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 등 다양한 Plan으로 분화
- 공적 보험 :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보험
 - ▶ Medicare : 65세 이상 및 장애인 대상,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Part A~D 4등급으로 구분하여 총 비용의 50%까지 보조
 - ▶ Medicaid : 저소득층 대상, 본인부담금 없음
 - ▶ 기타 공적보험 : SCHIP(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군인 및 퇴역군인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 ▶ 비영리 민간의료보험 : 입원서비스(BlueCross) 및 외래(BlueShield)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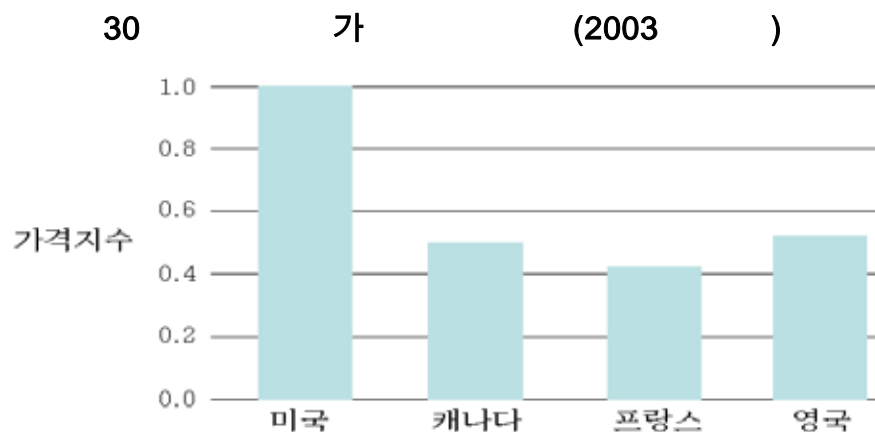
⁶⁾ The Kaiser Family Foundation and HRET (2008). Employer Health Benefits 2008 Annual Survey. p. 192.

2. 분야별 의료시스템 개혁 방향

가. 의료비 지출 효율화

□ 경쟁 활성화를 통해 제약사 및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어할 전망

- 의료시스템 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제약사 및 보험사를 지목
 - "거대 제약사 및 보험사의 개혁저항을 끝내겠다. 지난 10년간 그들은 개혁 저지에 10억 달러를 사용했다"(<www.barackobama.com>)
 - 2000~2005년 중 총 보험료는 8% 상승한 반면, 관리비 및 보험사 이윤을 포함한 간접비는 연평균 12.0%, 처방약제비는 10.7% 증가⁷⁾
- 연방정부가 제약사와 가격협상하는 것을 금지했던 「2003 Medicare Modernization Act(MMA)」 폐기를 공언
 - 가격협상을 통해 300억 달러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⁸⁾
 - 미국의 약값은 캐나다, 영국, 프랑스 대비 약 50% 더 비싸며, 이를 통해 제약사가 과도한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다고 인식



자료: Anderson, Gerard F. et. al. (2004. 7. 21.). Doughnut Holes And Price Controls. *Health Affairs Web Exclusive*, p. 3.

<<http://content.healthaffairs.org/webexclusives/index.dtl?year=2004>>

⁷⁾ Davis, Karen et. al. (2007). Slowing the Growth of U.S. HealthCare Expenditures: What are the Options? *The Commonwealth Fund/Alliance for Health Reform 2007 Bipartisan Congressional Health Policy Conference* (p. 3-4), January. The Commonwealth Fund. <http://www.commonwealthfund.org/usr_doc/Davis_slowinggrowthUSHltcareexpenditureswhatareoptions_989.pdf?section=4039>

⁸⁾ Hickey, Roger & Cruz, Jeff (2004. 7.). Waste and Inefficiency in the Bush Medicare Prescription Drug Plan: Allowing Medicare to negotiate lower prices could save \$30 billion a year. Institute for America's Future. <http://cdncon.vo.llnwd.net/o2/fof/medicare/National_Savings.pdf>

- 복제약에 대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연방공무원보험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대형 제약사의 행위를 단속
- 의료보험 마켓플레이스인 「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를 (이하 NHIE) 설립하여 보험사 간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
 - 지난 10년간 4백 개 이상의 보험사 간 M&A를 통해 소수 대형회사 중심의 시장구조 고착

□ IT 시스템 도입을 통해 비용절감 및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

- 향후 5년간 Electronic Health IT System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종이 기반 기록시스템을 정비할 계획
 - 모든 병·의원이 전자의료기록을 도입할 경우 입원일수 감소, 중복·불필요 검사 감소, 약품사용 최적화 등으로 큰 비용절감을 예상⁹⁾
 - Medicare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가 전자기록시스템을 도입하면 환급금을 늘려주는 방안도 고려
- 신기술, 의료서비스 등의 비용·품질 비교연구 및 평가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된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
 - 의료보험(Health Plan)사에는 보험료 중 환자 치료에 사용한 비용과 관리비 비중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
- IT 시스템을 활용해 비도시 및 의료서비스 부족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헬스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나.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 추구

□ NHIE를 통해 개인이 적절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

⁹⁾ Girosi, Federico, Robin, Meili & Scoville, Richard (2005). *Extrapolating Evidence of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Savings and Costs*. RAND Corporation. p.39.

- NHIE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연방공무원보험에 준하는 보장내역을 제공해야 하며, 현 질병유무를 들어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음
 - 보험자는 평균 이상의 보험료 인상 시 비용인상의 타당성을 증명해야 함
 - NHIE는 각 보험사별 비용, 비용 사용 투명성 등의 차이를 평가하여 공시
- 既 가입한 보험에 변동 없이 직장을 옮길 수 있으며, 보험자의 등록절차,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서류업무 부담 등도 최소화할 계획

□ 별도의 공공보험 플랜을 만들어 원하는 시민이 가입하도록 지원

- 종업원에 대해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대기업은 임금지출의 일정비율만큼 신설 공공보험에 기금납부를 의무화
 - 소기업은 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
- 신설 공공보험에 가입하는 병원 및 서비스 사업자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정보 시스템 및 관리비용 등이 기준에 맞는지를 NHIE에 보고해야 함

□ 세제혜택 및 보조금을 통해 저소득자, 개인 및 소기업의 보험가입을 지원

- 개인 보험 가입자에게 세금공제 제공
- 'Small Business Health Tax Credit'을 신설하여 소기업의 의료비 지출이 일정금액을 초과 시,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의 50%까지 환급해줄 계획

□ 각종 사회안전망 기관의 역량을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을 해소

- 모든 어린이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부모의 의료보험에 가입 연령을 25세까지 연장
- 메디케이드 및 SCHIP(어린이 대상 의료보장)의 보장대상이 확대될 전망
 - 2007년 10월 SCHIP의 보장대상을 4백만 명 추가하기 위해 3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법률안이 부시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음

다. 예방의학 및 공공보건 강화

□ NHIE를 통해 모든 필수적인 임상 예방서비스의 보험화를 의무화 예정

- 특히 대장암 검사는 모든 보험에서 의무화
 - 메디케이드에서 대장암 및 유방암 사전검사 본인부담금 폐지, 기타 보험은 본인부담금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유지
- 국립 유방암 및 자궁암 조기진단프로그램(NBCCEDP)과 같은 저소득층 대상 암 검사 프로그램 지속 확대

□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퇴치 프로그램 활성화

- 취임 첫 해에 미국 내 에이즈 퇴치를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할 예정
 - 저소득 HIV(에이즈바이러스) 감염자¹⁰⁾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
 - 에이즈 환자의 주거 안정, 교육, 생활환경 개선 등 정책과 연계
- 감염자 증가율이 높은 여성을 위한 백신 및 Microbicide(항바이러스제) 등 예방기술 개발에 연구자금 지원을 확대
 -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 질병통제국)를 통해 임산부의 산전 진단 항목에 에이즈 테스트 포함을 의무화

□ 세계적인 감염성질환 퇴치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망

- 2013년까지 500억 달러 규모의 에이즈퇴치 국제펀드를 주도적으로 조성¹¹⁾

¹⁰⁾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49%가 흑인으로, 흑인이 특히 에이즈에 취약. 흑인 남자 사망원인 3위가 에이즈. 미국 내 흑인 인구 비중은 13%

¹¹⁾ 미국은 2003년부터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 긴급프로그램(PEPFAR)'을 통해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에이즈 퇴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 4월 PEPFAR 5년 연장 및 예산 5백억 달러 추가 배정을 의회가 가결하였음

- 후진국이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조류독감 등 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 지적재산권조약(TRIPS) 기준에 적합한 선에서 개도국이 에이즈 치료제 등의 복제약 사용권리를 가지는 것을 지지
- 바이오테러, 조류독감 등 공공보건 위해요인 방지를 위한 펀드조성 및 세금혜택 등이 마련될 전망

□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사전예방활동이 강화될 전망

- 금연, 학교·직장에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보조금, 융자 또는 세금환급 등 다양한 증진책이 마련될 전망
 - 체중감량·금연 프로그램, 운동시설 회원권 할인, 사업장 내 운동시설 설치, 영양·건강 강좌 개최, 건강 관련 소식지 제공 등
- 현재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54%가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 중
 -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소액 감액하여 참여 유도

3. 예상 문제점

□ 막대한 정부지출 부담이 계획실행의 가장 큰 걸림돌

- 오바마의 의료개혁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첫 해에 860억 달러, 향후 10년간 1.6조 달러로 추산¹²⁾
 - 신규 의료보험 가입자는 첫 해에만 1,800만 명 정도로 전망
-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의 부유층 감세 정책을 중지하고, IT 시스템 등 기술 도입에 따른 효율향상분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

¹²⁾ Burman, Len, et. al. (2008. 9. 12.). An Updated Analysis of the 2008 Presidential Candidates' Tax Plans: Revised August 15, 2008. The Tax Policy Center.
 <http://www.taxpolicycenter.org/UploadedPDF/411749_updated_candidates.pdf>

- 국가단일보험¹³⁾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세금혜택 등을 통한 전 국민의료보장(Universal HealthCare) 체제 구축에는 난관이 예상
- 메사추세츠 주, 캘리포니아 주 등 주 단위에서 전 주민 대상의 의료보장 체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 및 개인 모두 비용증가 문제로 난관에 봉착
 - 메사추세츠 주는 2006년부터 전 주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나, 의료비 부담증가 문제로 성과는 불투명
 - 오바마의 정책 역시 사적계약에 기반한 민간의료보험체제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보조금 등 부수적 수단에 의존하는 한계

- 州 내의 모든 시민은 최소 수준 이상의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 ▶ 'State Purchasing Pool Fund'를 조성하여 저소득층에 보조금 지원
 - 보험사, 기업, 주 정부 공동으로 기금조성, 10인 이하 사업장은 출연 면제
 - ▶ 보험자는 보험액의 85%를 부담하는 대신, Medi-Cal 상환액을 환급 받음
 - ▶ Healthy Family 프로그램 병행 : 금연, 체중감량, 각종 암 예방진단 등

- 헬스 IT 시스템 도입 및 유헬스 확산은 기술적·정책적 문제 이외에도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상충에 따른 어려움 예상
- 보험사(Plan) 간 또는 병원 간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환자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해, 정보기반 의료서비스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
 - 소규모 병원은 헬스 IT 시스템 도입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는 점도 걸림돌

¹³⁾ 단일지불인제(Single Payer System)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의료보험을 독점하고, 의료서비스제공자(병·의원) 및 보험가입자(국민)의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체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대표적인 예

4. 시사점

① 제너릭(복제약)의 미국시장 진출 가능성 검토

- 복제약의 사용 및 수입을 장려하겠다는 오바마의 정책은 복제약 판매 중심의 국내 제약기업에게는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 및 대형화를 위해서는 해외 복제약시장 진출이 필수
 - 美 FDA의 약품생산규격(cGMP)에 맞는 생산설비 및 프로세스를 우선 확립할 필요
 - 현재 국내에는 완제의약품의 cGMP 인증 생산설비가 전무
 - 미국 현지에서의 생동성시험 등 필요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판매망 제휴 등 사업진출을 위한 치밀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
 - 原 제약사의 소송제기에 대비하여 특허·법무관계도 철저히 검토

② 진단제품(Diagnostics) 시장 활성화에 대비

- 예방 및 사전진단 강화 방향으로 정책 및 의료보장 확대가 확실시됨에 따라 각종 진단제품 시장의 고속 성장이 예상됨
 - 특히 암 조기발견 및 각종 감염성 질환 진단 분야가 유망
 - 「FDA Amendment Act of 2007」에서 임상시험 시 대상자를 유전특성에 따라 엄밀하게 구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진단제품시장이 확대될 전망
 - DNA 칩, PCR 시스템, 현장에서 간편하게 조류독감 등의 검사가 가능한 휴대용 센서 등 IT와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분야에서 사업기회 검토

③ 국내 IT 산업에 헬스케어 지식을 접목한 신사업 개척

- 부시 행정부에서부터 이미 2015년까지 전 국민 전자의료기록 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어, 헬스 IT 분야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
- 주로 영상으로 구성된 대용량 의료정보의 효과적인 저장·전송·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고성능 IT기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예) 핸드헬드PC, 서버, 고성능 연산처리장치, 대용량 메모리, 의료용 고선명 디스플레이, 네트워킹 장비·SW, PACS,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RFID를 이용한 U-Hospital 시스템 등
 - 막대한 영상정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내고, 표준 데이터와 비교·판단하여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하는 의료영상 인포메틱스 분야가 유망
 - 영상 비교·판단용 Expert 검색 엔진, 표준화한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CAD(Computer-Aided Diagnosis) 시스템 등
 - 중·장기적으로 유헬스 개념 확산에 대비하여, 전문 의료장비의 가정용·개인용 기기화 준비
 - 개인용 혈당측정기, 혈압, 맥박 등 기초신호 측정기, 각종 POC(Point of Care) 성분분석기 등
 -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의료보험사(HMO 등)와 전략적 제휴관계 및 신뢰구축이 필수

<以上>

<첨 부>

정책	주요 내용	국내 영향·대응
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설립	- 기존 민간보험 및 신설 공공보험의 비교·계약 - 일정 수준의 보장내용 및 적절한 보험료 책정 의무화	-
새로운 공공보험 설립	-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대기업에게 일정한 기금출연 요구	-
의료비 경감	- 개인 보험료 세금공제 확대 - 취약계층 보조금 지급 - 소기업 의료비공제 신설	-
어린이 및 청소년 보장	- 모든 어린이 의료보장 추진(SCHIP 확대)	-
신기술 및 의료서비스의 평가 및 결과공개	- 의료서비스·기술 평가를 위한 연구소 설립	-
Health IT 도입 촉진	- 향후 5년간 e-헬스기록 시스템 구축에 100억 달러 투입	IT시스템 수요확대
의료사각지대 해소	- IT를 이용한 비도시지역, 의료서비스 부족지역 해소	유헬스 기기·서비스 시장화 가능성
연방정부의 의약품 가격협상권 부활	- Medicare Modernization Act 가격협상 금지조항 폐기	-
복제약 시장화 장려	-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의 복제약 사용확대	美 복제약 시장진출 검토·준비
공공보건 및 예방	- 바이오테라, 조류독감 등 공공보건 위해요인 방지를 위한 펀드 및 세금혜택 검토 - 종업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조	진단제품 개발, 유전체연구 활성화
감염질환 퇴치	-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퇴치기금 조성 - 예방 및 치료제 기술개발 지원	
예방검사 및 진단 의무화	- 대장암 검사 보험포함 의무화, - 대장암, 유방암 본인부담금 경감 - 저소득층 암검사 프로그램 확대	
암 및 맞춤의학 연구개발 강화	- 암 연구분야 연방예산 확대 - 개인 맞춤의학분야 연구개발 확대	

자료: www.barachobama.com의 의료정책 부분 정리

주간 금융지표

:

	12.1	12.2	12.3	12.4	12.5
회사채(AA-)	8.91	8.86	8.80	8.90	8.80
회사채(BBB-)	12.52	12.48	12.41	12.52	12.44
국고채(3년물)	4.70	4.44	4.26	4.33	4.17
콜금리	3.90	3.93	3.91	3.85	3.82

자료 : 한국증권업협회. ; 한국자금중개.

:

, ,

	12.1	12.2	12.3	12.4	12.5
원/달러	1440.0	1464.5	1469.0	1477.0	1475.5
엔/달러	93.02	93.17	93.32	92.28	92.82
달러/유로	1.2617	1.2722	1.2714	1.2773	1.2720
원/100엔	1548.14	1571.94	1574.24	1600.65	1589.72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 Thomson Reuters. Datastream.

가 : 11 가 ,

구 분		12.1	12.2	12.3	12.4	12.5
거래소	KOSPI(p)	1,058.62	1,023.20	1,022.67	1,006.54	1,028.13
	거래량(만주)	62,731	42,108	47,867	39,737	39,855
	시가총액(조원)	544	526	526	518	528
	외국인순매수(억원)	338	-96	-1,437	-99	-62
코스닥지수(p)		308.20	299.58	301.44	298.92	302.16

자료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

주간 경제일지

(12. 8 ~ 12. 12)

12. 08. (월)

- 국내 보도자료: 2008년 11월 생산자물가 동향 (한국은행)

12. 09. (화)

- 국내 보도자료: 2009년 경제전망 (한국은행)
- 해외 보도자료: 일본, 2008년 10월 경기동행지수 (내각부)

12. 10. (수)

- 국내 보도자료: 2008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2008년 10월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동향 (한국은행)
2008년 11월 고용동향 (통계청)
- 해외 보도자료: 일본, 2008년 10월 민간기계수주 (내각부)

12. 11. (목)

- 해외 보도자료: 미국, 2008년 10월 상품 및 서비스 수지 (상무부)

12. 12. (금)

- 국내 보도자료: 2008년 11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한국은행)
2008년 3/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 (한국은행)
2008년 3/4분기중 자금순환 동향(잠정) (한국은행)
- 해외 보도자료: 미국, 2008년 11월 소매판매 (상무부)
미국, 2008년 11월 생산자물가(노동부)
유로지역, 2008년 10월 산업생산 (EU 통계청)
일본, 2008년 11월 소비자태도지수 (내각부)

주간 해외 경제일지

(12. 1 ~ 12. 5)

미 주

<p>12. 1. (월)</p> <p>· 미국: 11월 ISM 제조업지수 36.2, 1982년 이후 최저치 기록</p> <p>– 50미만은 경기 위축을 의미</p>
<p>12. 2.(화)</p> <p>· 미국: 10월 건설지출이 전월대비 1.2% 감소, 상무부</p> <p>– 지난 2년6개월 동안 두 달을 제외하고 감소세 지속</p>
<p>12. 3. (수)</p> <p>· 미국: 11월 민간부문 고용이 25만명 감소, 7년래 최대감소폭 기록, ADP</p>
<p>12. 4. (목)</p> <p>· 미국: 비농업부문 3/4분기 노동생산성 전분기대비 연률 1.3% 상승, 노동부</p> <p>11월 ISM 서비스업 지수 37.3, 사상 최저치 기록</p>
<p>12. 5. (금)</p> <p>· 미국: 10월 공장주문 전월대비 5.1% 감소, 8년만에 최대폭으로 급감, 상무부</p>

유 럽

<p>12. 1. (월)</p> <p>· EU: 유로존 11월 인플레이율은 전년동월대비 2.1% 상승</p> <p>– 1년래 최저 상승률 기록</p>
<p>12. 2. (화)</p> <p>· EU: 유로존 10월 실업률은 전월대비 0.1% 상승한 7.7% 기록</p>
<p>12. 3. (수)</p> <p>· EU: 유로존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전월보다 하락한 35.6</p>
<p>12. 4. (목)</p> <p>· EU: 유로존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3% 상승</p>
<p>12. 5. (금)</p> <p>· EU: 유로존 11월 서비스업지수는 전월보다 하락한 42.5 기록</p>

일 본

12. 1. (월) · 일본: 10월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3.1% 하락한 102.3 기록
12. 2. (화) · 일본: 10월 소매판매는 2개월 연속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한 10조 9,330억엔
12. 3. (수) · 일본: 10월 실질가계지출은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하여 8개월 연속 감소
12. 4. (목) · 일본: 기업 3/4분기 경상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2.5% 감소
12. 5. (금) · 일본: 금융, 보험업 제외한 3/4분기 전산업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3.0% 감소

동 남 아

12. 1. (월) · 인도네시아: 11월 소비자물가지수 11.7%를 기록 - 상승률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
12. 2. (화) · 인도네시아: 2009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당초 6%에서 4.5%로 하향 조정, 재무부 - 3/4분기 경제성장률, 6분기만에 최저치인 6.1% 기록
12. 3. (수) · 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기존 3.75%에서 2.75%로 1%p 인하
12. 4. (목)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9.50%에서 9.25%로 0.25%p 하향 조정
12. 5. (금) · 베트남: 2009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5.0%로 전망, IMF - 베트남 정부는 6.5%로 예측

◆ 거시지표 ◆

	경제 성장률	소비자 태도지수	물가		고용		금융동향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임금 (제조업, 실질)	통화(평잔기준)		회사채수익률 (평균)	어음부도율		주가지수
							M2	M3		전국	서울	
	전년동기대비(%)	포인트 (p)	전년동월대비(%)	기간 중 평균(%)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	%	%	기말기준		
2003	3.1	44.6	2.2	3.5	3.6	5.0	7.9	8.8	5.4	0.08	0.06	810.7
2004	4.7	43.3	6.1	3.6	3.7	5.7	4.6	6.1	4.7	0.06	0.04	895.9
2005	4.2	46.9	2.1	2.8	3.7	5.2	6.9	7.0	4.7	0.04	0.03	1,379.4
2006	5.1	47.6	0.9	2.2	3.5	3.4	8.3	7.9	5.2	0.02	0.02	1,434.5
2007	5.0	49.4	1.4	2.5	3.2	3.9	11.2	10.2	5.7	0.02	0.01	1,897.1
2007. 11	5.7	53.4	3.1	3.5	3.0	2.3	11.3	10.4	6.16	0.04	0.03	1,906.0
12			3.6	3.6	3.1	3.0	11.5	10.6	6.73	0.03	0.01	1,897.1
2008. 1			4.2	3.9	3.3		12.5	11.4	6.64	0.03	0.02	1,624.7
2	5.8	51.1	5.1	3.6	3.5	3.7	13.4	11.6	6.27	0.02	0.01	1,711.6
3			6.0	3.9	3.4		13.9	11.9	6.13	0.03	0.02	1,704.0
4			7.6	4.1	3.2		14.9	12.7	5.91	0.06	0.05	1,825.5
5	4.8	47.8	9.0	4.9	3.0	5.3	15.8	13.1	6.22	0.04	0.03	1,852.0
6			10.5	5.5	3.1		15.1	12.7	6.68	0.03	0.02	1,674.9
7			12.5	5.9	3.1		14.8	12.1	6.99	0.02	0.01	1,594.7
8	3.8	37.7	12.3	5.6	3.1	..	14.7	11.8	7.11	0.02	0.02	1,474.2
9			11.3	5.1	3.0		14.5	12.2	7.46	0.02	0.01	1,448.0
10			10.7	4.8	3.0		7.95	0.03	0.02	1,113.1
11	..	38.5	..	4.5	8.56	1076.07

주: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으로 2000년 10월 이전은 A+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기준임

◆ 산업활동 ◆

	경기종합지수		소매액 지수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 수주	산업활동				
	선행지수	동행순환 변동치	총지수	백화점	할인점			평균 가동률	제조업생산			
									전체	반도체	자동차	선박
	2005=100 (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03	91.6	100.4	-3.2	-5.4	8.4	-9.2	19.3	78.3	5.6	15.9	3.8	11.4
2004	95.8	100.3	1.1	-4.9	5.3	7.0	-3.9	80.3	10.8	54.7	10.1	13.6
2005	100.0	99.4	4.2	3.1	7.9	1.0	7.3	79.5	6.4	28.9	7.5	8.6
2006	105.2	99.9	4.1	3.2	8.1	16.2	9.0	80.0	8.6	55.6	7.6	6.7
2007	111.9	100.6	5.3	0.8	8.7	21.1	19.3	80.4	7.0	20.5	6.1	8.3
2007. 11	115.5	100.8	4.4	10.0	6.6	46.7	36.3	80.8	7.6	22.9	1.0	3.4
12	115.8	101.2	2.6	-1.7	7.1	28.8	1.4	81.0	9.8	46.8	-4.5	5.6
2008. 1	115.1	101.5	4.6	6.8	11.5	44.4	-13.1	82.1	11.5	61.2	13.3	-4.6
2	114.3	101.2	2.9	3.5	3.3	8.3	-6.2	80.6	10.0	62.8	0.7	15.1
3	113.8	100.9	4.4	2.5	7.8	24.1	5.3	81.3	10.6	71.7	3.3	11.5
4	114.0	100.5	5.4	1.6	2.4	17.9	-2.5	82.2	11.1	53.4	1.3	22.2
5	114.1	100.4	3.0	4.2	4.3	3.0	18.8	80.3	8.9	70.5	-0.6	22.4
6	113.6	99.9	-1.0	5.6	2.7	6.3	-23.4	80.5	6.9	31.9	6.2	20.8
7	112.8	99.7	3.9	-0.7	4.5	20.7	-13.0	79.7	8.7	21.5	-5.9	29.2
8	112.6	99.4	1.4	8.5	1.4	-3.9	-7.6	78.5	1.9	1.9	-8.5	24.8
9	112.6	99.2	-1.8	-5.1	-7.4	-34.3	-40.4	77.3	6.1	-1.5	-4.3	35.0
10	112.3	98.4	-3.7	-1.9	-1.6	-36.7	-23.9	77.0	-2.9	-17.2	-0.7	34.5
11

주: 반도체는 2006년 7월로 통계청 DB내 '반도체 및 기타 전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illegible]

◆ 국제수지 및 외환 ◆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 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자본 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원/달러	원/엔	총외채	순채권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		억 달러(기말기준)	
2003	11,950	21,952	-7,424	326	13,909	100	17,907	155,352	1,197.8	1,119.60	1,574	705
2004	28,174	37,569	-8,046	1,083	7,599	4,588	8,619	199,066	1,043.8	1,012.07	1,723	1,119
2005	14,981	32,683	-13,658	-1,563	4,757	2,010	-1,728	210,391	1,013.0	859.90	1,879	1,207
2006	5,385	27,905	-18,961	534	17,972	-4,540	-22,746	238,956	929.6	781.83	2,601	1,066
2007	5,954	29,409	-20,575	769	6,232	-13,697	-19,093	262,224	938.2	833.33	3,807	348
2007. 11 12 2008. 1 2 3 4 5 6 7 8 9 10 11	1,505	2,644	-1,459	423	-1,499	-1,726	-2,912	261,928	929.6	846.51	3,822	355
	-814	443	-1,240	412	1,215	-1,258	3,344	262,224	938.2	833.33		
	-2,751	-1,095	-2,138	768	171	-2,489	-3,925	261,871	943.9	889.09		
	-2,351	-599	-2,250	701	-401	303.5	-5,426	262,365	937.3	889.70	4,138	132
	-111	475	-680	219	388	-2,605	-1,628	264,246	990.4	1,000.20		
	-1,581	1,632	-979	-1,932	-387	-1,912	3,572	260,483	1,002.6	961.76		
	-378	613	-1,167	459	-1,250	-263	7,343	258,199	1,030.1	977.03	4,206	17
	1,824	3,478	-2,126	827	-3,992	-739	-5,696	258,098	1,046.0	981.79		
	-2,534	218	-2,456	240	-5,775	-1,214	-8,856	247,523	1,012.2	932.85		
	-4,696	-2,803	-2,000	325	5,325	-743	-567	243,200	1,089.0	987.90	4,251	-251
	-1,350	-890	-1,236	792	-4,777	-327	-3,346	239,672	1,207.0	1,144.22		
4,915	2,787	-55	1,411	-25,531	-199	4,477	212,253	1,291.0	1,306.03			
..	200,506	1,469.0	1,553.79

《 주요국 통계 》

[]

	성장률(실질)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100
2003	2.5	0.6	3.2	2.3	7,134	12,607	-5,275	1.00	10,453.9
2004	3.6	3.6	2.7	5.5	8,075	14,771	-6,401	2.25	10,783.0
2005	3.1	4.9	3.4	5.1	8,946	16,818	-7,548	4.25	10,717.5
2006	2.9	3.0	3.2	4.6	10,231	18,614	-8,115	5.25	12,463.2
2007	2.2	3.9	2.9	4.6	11,493	19,649	-	4.25	13,264.8

주: 1) 전년동기대비, 2) 연방기금금리, 3) 다우지수

[]

	성장률	산업생산 ¹⁾	소비자물가 ²⁾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³⁾	주가(기말) ⁴⁾
	%	%	%	%	백억엔	백억엔	백억엔	(%)	
2003	1.4	3.3	-0.3	5.3	5,455	4,436	1,577	1.70	10,677
2004	2.7	5.5	0.0	4.7	6,117	4,922	1,862	1.55	11,489
2005	1.9	1.1	-0.3	4.4	6,566	5,695	1,826	1.85	16,111
2006	2.4	4.8	0.3	4.1	7,525	6,734	1,985	2.35	17,226
2007	2.1	2.7	0.0	3.9	8,394	7,312	2,500	2.30	15,308

주: 1) 광공업생산, 2) 전년동기비, 3) 장기프라임레이트, 4) 日經평균주가

[]

	성장률	산업 생산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3	0.8	1.4	2.1	8.7	10,584	9,888	324	2.00	2,760.7
2004	2.0	2.3	2.1	8.8	11,492	10,788	620	2.00	2,951.2
2005	1.5	4.1	2.2	8.9	12,391	12,243	85	2.25	3,578.9
2006	2.8	5.1	2.2	8.3	13,826	13,918	-129	3.50	4,119.9
2007	2.7	2.8	2.1	7.4	14,976	14,693	-	4.00	4,399.7

주: 1) 전년동기대비, 2) 단기공개시장조작금리(기말), 3)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

	성장률(실질)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3	-0.2	1.7	1.0	10.5	6,616	5,319	509	2.05	3,965.2
2004	1.1	1.6	1.7	10.6	7,316	5,755	949	1.98	4,256.1
2005	0.8	4.6	2.0	11.7	7,863	6,280	1,031	2.32	5,408.3
2006	2.9	5.5	1.7	10.8	8,935	7,322	1,141	3.48	6,596.9
2007	2.5	2.0	2.1	9.0	9,690	7,703	1,620	3.66	8,067.3

주: 1) 전년동기대비, 2)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3) DAX 지수(1987.12.30=1,000)

[]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파운드	억파운드	억파운드	%	
2003	2.7	1.5	1.4	3.0	1,883	2,369	-149	3.75	4,476.9
2004	3.3	2.5	1.3	4.8	1,909	2,518	-193	4.75	4,814.3
2005	1.8	2.8	2.0	4.8	2,116	2,804	-310	4.50	5,618.8
2006	2.9	2.5	2.3	5.4	2,447	3,221	-502	5.00	6,220.8
2007	3.1	2.6	2.3	5.4	2,207	3,081	-	5.50	6,456.9

주: 1) 전년동기대비, 2) 영란은행 RP 금리, 3) FTSE 100지수(1984.1.3=1,000)

[]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3	1.1	-0.4	2.1	9.9	3,225	3,213	80	2.03	3,557.9
2004	2.5	1.9	2.1	9.3	3,410	3,460	77	2.04	3,821.2
2005	1.7	0.3	1.7	9.3	3,574	3,801	-164	2.36	4,715.2
2006	2.2	1.0	1.7	9.2	3,892	4,173	-225	3.43	5,541.8
2007	1.9	1.5	1.5	-	4,003	4,393	-244	3.76	5,614.1

주: 1) 전년동기대비, 2) 단기국채수익률, 3) CAC 40 Index(1987. 12. 31=1,000)

[]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3	10.0	17.0	1.2	4.3	4,385	4,131	459	5.31	1,497.04
2004	10.1	16.7	3.9	4.2	5,934	5,614	687	5.58	1,266.50
2005	10.4	16.4	1.8	4.2	7,620	6,601	1,608	5.58	1,161.06
2006	11.1	16.6	1.5	4.1	9,691	7,916	2,499	6.12	2,675.47
2007	11.4	18.5	4.8	-	12,180	9,558	-	7.47	5,261.56

주: 1) 전년동기대비, 2) 1년만기 대출금리, 3) 상해 종합주가지수

[]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3	3.5	7.1	-0.3	5.0	1,506	1,280	292	3.429	5,890.69
2004	6.2	10.4	1.6	4.4	1,824	1,688	185	3.516	6,139.69
2005	4.2	3.6	2.3	4.1	1,984	1,826	160	3.845	6,548.34
2006	4.9	5.2	0.6	3.9	2,240	2,027	247	4.115	7,823.70
2007	-	7.6	1.8	3.9	2,467	2,194	-	4.319	8,506.28

주: 1) 전년동기대비, 2) 프라임 레이트, 3) 가권지수